

# ‘계몽의 시대’ 연 백과사전과 포르노그라피

서양의 금서 이야기 — 18

주명철 | 한국고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인류사의 전환점이 된 프랑스혁명의 원인을 정치·경제·사회적 요소에서만 찾을 수 없다. 이같은 전통적 시각으로 프랑스혁명을 분석한다면 1789년 이전에 일어난 폭동이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해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나쁜 인쇄물’의 역할이다. 계몽주의 시대를 연 백과사전과 전복적 상상력이 펼쳐진 포르노그라피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프랑수아즈 베이이 최근 발간한 연구서 《금서, 박해받은 책 1720~1770》(볼테르 파운데이션, 1999)에는 모두 627가지 책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저자는 검열제도로 출판허가를 받지 못한 책 뿐만 아니라, 출판허가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자 곧바로 허가가 취소되고 추적받은 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책 가운데 볼테르의 작품은 51개로, 역시 그가 18세기 사상적 투쟁을 이끈 사상가답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 다르장스 후작의 작품은 그 다음으로 많은 17개다. 올바크, 켈뤼스 백작, 장-자크 루소의 작품이 각각 6개, 고다르 도쿠르의 작품이 5개, 크레비용, 디드로, 뒤로랑의 작품이 각각 4개, 슈브리에, 랑글레 뒤프레누아의 작품이 각각 3개 포함돼 있다.

영국인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나 헨리 필딩의 《톰 존스 이야기》와 《조셉 앤드류스의 모험》, 알렉산더 포우프의 《작품집》과 《던시아드》, 그리고 조나단 스위프트의 《부질없는 이야기》도 포함돼 있는 이 목록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밝혀진 금서를 종합해 비교적 가장 자세하게 작성한 1720~1770년의 금서목록이다. 이 목록을 보면 이미 지난 호에서 말했던 세가지 금기 사항에 관한 작품이 두루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계몽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백과사전》까지! 사실, 루이 15세는 《백과사전》의 특허를 취소한 뒤 두고두고 이를 후회했다고 하지 않는가?

## 사전의 황금시대 맞이한 18세기

프랑스의 《백과사전》은 영국에서 나온 두권짜리 《체임버즈 사전》에 자극을 받은 출판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서, 이것의 출판역사 자체는 계몽시대 지식인의 활동에 관한 모든 요소를 두드러지게 만들어준다. 편집인들은 먼저 정식 출판허가인 특허를 받아 제1권을 1751년에 내놓은 뒤부터 계속 물의를 빚고, 1759년 특허를 취소당하고 나서도 불법출판을 감행해 1772년까지 모두 28권(본문 17권, 도판 11권)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이미 1752년 2월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첫 두권을 폐기토록 했는데, 그럼에도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오히려 증보판을 찍어내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항한 것은 사상투쟁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었다.

18세기의 계몽시대는 뉘니뉘니 해도 ‘사전의 황금시대’였다. 출판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가들

은 이 시대에 사전 출판이 양적으로 팽창했음을 강조한다. 사전의 부피도 커지고, 재판을 찍는 횟수도 더욱 늘었고, 게다가 증보판도 잇달아 나왔다. 1700년부터 1789년까지 초판·재판·증보판으로 나온 사전은 통틀어 553가지였다. 또한 과학·신학·역사·지리·예술·언어, 심지어 사랑이나 음식 같은 다양한 분야를 각각 다루는 사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사전이 나왔다. 이들은 이미 가나다순으로 항목을 배치했다.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착수한 《백과사전》은 이같은 맥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나는 250년 전에 150여명의 지식인을 모아서 이처럼 방대한 사전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면서, 이런 저력이 18세기를 계몽시대로 만든 밑거름이 됐다고 믿는다. 몽테스키외는 약속한 항목을 모두 쓰기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취미’ 항목만 쓰고, 볼테르는 44개 항목을 썼다. 루소는 음악에 관한 항목을 썼다. 모두 72,000항 정도인 《백과사전》에 가장 많은 항목을 쓴 사람은 조쿠르였다. 그는 17,000항목을 썼던 것이다! 부세 다르지스는 4,500항목 이상을 썼다. 책임편집인 가운데 달랑베르는 주로 수학과 과학에 대해 1,500항목을 썼고, 디드로는 5,000항목 이상을 썼다. 150여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기껏해야 한 항목을 썼고, 나머지가 평균 5항목을 쓴 것으로 볼 때, 몇사람의 노력이 실로 돋보인다.

이처럼 방대한 사전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만한 인적 자원을 갖췄다는 사실, 이들은 18세기 프랑스의 모든 아카데미에서 활동한 연인원 6,000명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계몽시대의 프랑스가 ‘프랑스풍의 유럽’을 이끌어간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많은 금서의 생산자와 유통자, 그리고 소비자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은 금서의 본질을 생각하기에 앞서, 혁명 전 프랑스의 정책이 새로운 지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들 지식인 가운데는 필요하다면 정

치나 종교를 다루는 작품 말고도 성을 다루는 작품을 세상에 뿌린 사람도 많았다.

### 프랑스 포르노그래피의 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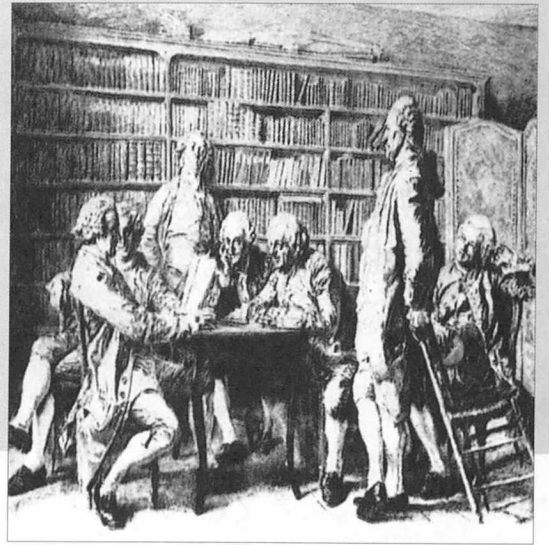
혁명 초기에 많은 활약을 하다 죽은 미라보 백작은 혁명 직전에는 경찰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음란한' 소설을 썼다. 그러나 그는 《들춰진 커튼》《에로티카 비블리온》 같은 작품을 계몽주의의 선전 수단으로 썼다. 계몽사상가는 자기가 발견한 원리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신념으로, 자기의 주제에 맞는 방편을 자유자재로 이용했던 것이다. 디드로의 《경솔한 보배》, 뒤로랑 신부의 《아라스의 촛불》, 크레비용 피스의 《소파》, 펠릭스 노가레의 《프랑스의 아레초 사람》(“아레탕 프랑세”), 제르베즈 드 라투슈의 《샤르트르 수도원의 문지기 동 부그르의 이야기》, 푸즈레 드 몽브롱의 《헌 옷 짚는 마르고》, 볼테르의 시 《오를레앙의 처녀》, 익명의 저자 작품인 《계몽사상가 테레즈》는 모든 문학적 형식을 다 동원해 체제가 지키고자 하던 가치를 뒤흔든 작품들이다.

그런데 이런 작품, 다시 말해서, '한손으로만 읽는 책'의 전통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특히 프랑스에서 포르노그래피 작품의 기원은 1655년쯤 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소녀들의 학교, 또는 귀부인들의 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 해군성에 근무하던 새뮤얼 피스는 1668년에 이 책을 읽은 뒤 “내가 봤던 책들 중에서 가장 추잡하고 가장 음란한 책”이긴 해도, “각성된 사람이라도 세상의 사악함을 알기 위해 한번쯤 읽어보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라고 일기에 적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18세기부터 이 작품을 정치적으로 전복적인 작품이라고 해석하는 전통이 생겨났다.

열여섯살 난 팡송에게 몇살 위인 사촌언니 쉬잔이 남자에 관해 가르치는 교훈적인 얘기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전복의 징후를 느낄 수 있을까? 조운 디진은 《소녀들의 학교》가 “무엇보다도 실험적인 작품으로서 ‘경계선’을, 아마도 ‘미풍양속’의 경계선을 시험하기 위해 창조된 작품이지만 다른 경계선까지도 시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함으로써, 비록 이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긴 해도, 프랑스에서 포르노그래피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포르노그래피의 발명》, 조한욱 옮김, 책세상).

“쉬잔느 — 들어 봐,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감추지 않겠어. 너는 오줌 누는 남자를 본 적이 없니? 그리고 남자가 무엇으로 오줌을 누는지 본 적이 없니?”

팡송 — 아무렴, 봤구말구. 언젠가 길에서 벽에 대고 오줌을 누는 사람을 봤지.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손에 잡고 있었어. 그는 내가 담길을 따라 걸어오는 걸 보더니 내 쪽으로 돌아서서 마



18세기 금서목록에는 계몽시대의 상징인 《백과사전》까지 들어 있었다. 사진은 대화를 나누는 백과사전파를 소묘한 그림.

치 길고 하얀 순대같이 생긴 것을 보여줬어. 난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척 놀랐지...”

쉬잔느는 팡송에게 남자의 기관을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한 이름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이 여성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다. 또한 여성의 기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준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1682년에 초판이 나온 의설서 《수녀원 안의 비너스, 또는 속옷 바람의 수녀. 원장신부 뒤 프라의 이상야릇한 대답》에서도 나타난다. 아네스 수녀가 속옷을 갈아입는 중에 앙젤리크 수녀가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이 작품도 선배를 닮은 대화체 소설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전통에서 플라톤부터 내려오는 대화체라는 문학 양식을 빌어 성적인 내용을 말하는 작품에서 프랑스 포르노그래피의 전통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작품은 별로 큰 자극을 주지 못하지만, 원체 점잖고 도덕적인 원칙을 내세우던 사회에서는 물의를 빚을 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실로 중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런 작품은 사람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프랑스 혁명이 마른 하늘에 비락치듯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 배경이 될 만한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단순히 군주정이 1788년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 어느 사회나 모순이 있게 마련이며, 파리에 한정시켜 생각해 볼 때, 1789년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동이나 소요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어째서 ‘혁명’으로 발전하지 못했던가? 우리는 1788년에 혁명의 모든 원인이 들어 있다고만 볼 수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변화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하며, 거기서 ‘나쁜’ 인쇄물이 맡은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